

## 도야마발 ~지구공생 마인드~

1 자치단체명 : 일본 도야마현

2 발표자명 : 히로오카 마나하(廣岡 愛波), 후지이 시호(藤井 志帆),  
다카시마 타쿠마(高島 拓馬) 도야마국제대학 부속고등학교 2학년

### 3 활동을 시작한 경위 등

(1) 각종 강연참가, 활동발표 : 2001년부터 학교나 각종단체에서 실시  
고교주최 국제이해강좌나 도야마지오파크 가시화 워크숍, 북서태평양  
환경협력 심포지엄등에 참가해 지구규모의 여러문제에 대해서 알고,  
다각적인 시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활동을 통해 얻은것을  
문화제나 변론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협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2) 행복한 유산 프로젝트 : 2015년부터 국제영어코스과 유네스코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더」의 1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생각하고 있다. 세계각국에 있는 7개 자매교의 학생들과 함께  
후세에 남기고 싶은 것을 100가지 유산으로 선정했다.



(3) 청소활동 : 1999년부터 교내 리더나 유네스코부에서 실시  
학교주변이나 도야마만 해안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야마만 청소에서는 표착물 조사를 통해 우리의 생활자세를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4) 에코뚜껑 수거활동 : 2005년부터 학교전체에서 실시  
환경보전과 발전도상국 어린이들을 구한다는 등 사회공헌을 목적  
으로 페트병뚜껑을 수거하고 있다. 뚜껑은 약 860 개가 있으면  
1병의 백신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많은  
어린이들을 구하고자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5) 옷의 힘 프로젝트 : 2011년부터 학교전체에서 실시  
UNCHR 나 유니쿠로와 협력해 불필요한 의복을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보내고 있다. 원래라면 폐기하는 옷들인데 유효  
활용하는 것으로 생활속에서 난민구제 의식을 높인다.



(6) 국경없는 의사단에 기부 : 2017년부터 학교전체에서 실시  
모금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매출에 비례해 이익의 일부를  
MSF (국경없는 의사단)에 기부하고 있다. 학생회에서 학생들  
에게 선전해 국제협력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 4 발표요지 :

학교주최 국제이해강좌에서는 환경파괴문제나 빈곤문제 등 지구규모의 여러 문제를 아는  
것으로 국제협력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유네스코스쿨에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행복유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더」의  
1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각국에 있는 7곳의 자매교 학생들과 함께 후세에 남기고 싶은  
것 100가지를 유산으로 선정했다.

지구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주변이나 해안청소를 하고, 페트병뚜껑 수거나 모금용자동판매기를 활용해  
국경없는 의사단에 기부, 불필요한 의복을 도상국에 보내는 「옷의 힘 프로젝트」를 계속  
해나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사회공헌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2017년 12월에  
「북서태평양 환경협력 심포지엄」에 참가했을 때, 일본의 해양보전을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이 연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통감했다.

그리고, 도야마 지오파크 가시화 워크숍에 참가해 2020년의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 인정을  
목표로 하는 다테야마구로베 환경보전을 위한 「간판만들기」를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마인드를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 다음세대에 아름다운 지구를 남겨주도록  
노력해 나가고 싶다.